

“기억하라 녹두밭...주남마을서 되새긴 오월”

제13회 기억이 니은이 인권문화제

살풀이·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며 518m 추모 행진 헌화·주먹밥으로 기억 나눔...“민주·인권·평화 공간”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과 암매장의 아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비극이 서린 광주 동구 주남마을에서 오월 영령을 추모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제13회 기억이 니은이 인권문화제’가 지난 16일 열렸다.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518m 추모 행진에 나서고, 주먹밥을 함께 나누며 1980년 광주의 연대 정신을 되새겼다.

“기억이 니은이”는 주남마을의 옛 지명인 ‘지한면 녹두밭 웃머리’를 기억하자는 뜻에서 ‘기억하라 녹두밭 웃머리’의 초성인 ‘기’와 ‘니’를 따 이름 붙여졌다. 지난 2014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해 온 이 문화제는 오월의 아픔을 지역 공동체의 기억으로 남기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이어가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안도걸 국회의원회관과 신동하 동구청장 권한대행, 이철성 축제추진위원장, 조장근 지원2동 자치회장, 김순권 광주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이 숨 쉬는 주남마을’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노란 풍선, 깃발을 들고 마을 입구에서 5·18 위령비까지 518m를 함께 걸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행진 도중 참가자들은 ‘1980년 오월 어느 날’이라는 제목의 벽화 앞에 잠시 멈춰 섰다.

사회자는 “벽화 속 사슴은 평안과 신성함을 상징하고, 18마리의 사슴은 당시 희생자와 부상자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말없이 벽화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위령비 앞에서는 유급님 전통무용가의 살풀이 공연이 이어졌다. 희생자들의 넋



계엄군에 의해 암매장된 희생자를 기리는 ‘제13회 기억이 니은이 인권문화제’가 지난 16일 광주 동구 주남마을에서 진행됐다. 강원대 강릉캠퍼스 민중가요노래패 타래가 5·18위령비 앞에서 추모하고 있다.

을 위로하는 애절한 몸짓에 현장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참가자들은 풍선 날리기와 헌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통해 오월 정신을 함께 기렸다.

참석자들은 ‘1980년 5월 광주, 피지도 못하고 짓밟힌 두 청년의 넋을 위로하며 작은 돌비를 세웁니다’라고 적힌 위령비 앞에 국화를 내려놓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민주로·인권로·평화로의 비석

에 새겨진 시를 강숙자·박병윤·박지수씨가 차례로 낭독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이 하얀 천과 조약돌 위에 ‘주남마을 기억하겠습니다’, ‘민주·평화·인권’, ‘5월 광주 잊지 않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붓글씨로 적으며 오월 정신 계승 의지를 다졌다. 지원2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준비한 주먹밥 나눔 행

사도 이어져, 참가자들은 1980년 시민들이 서로를 위해 나섰던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

타 지역 대학생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임세경 강원대 강릉캠퍼스 민중가요노래패 ‘타래’ 회장(23)은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주남마을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광주를 찾았다”며 “광주에서 느낀 민주주의의 의미와 현장의 기억을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철성 위원장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억하고 축제를 이어왔지만 주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국가와 행정이 함께 지켜야 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와 동구는 주남마을 위령비 일대를 민주·인권·평화 역사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개인 사유지에 설치된 위령비 부지를 매입해 주변을 정비하고, 과거 공수부대 주둔지 일대에는 상설 공연과 문화행사가 가능한 광장과 무대를 조성한다. 또 인근 폐축사는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 채 민주·인권·평화 역사관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오늘의 날씨

☀️ 맑음 05:27 달맞이 06:05
☁️ 흐림 19:13 달림 21:37



광주	☀️	15~32
목포	☀️	15~28
여수	☀️	16~28
순천	☀️	15~29
구례	☀️	14~32
광주	☀️	12~29
진남	☀️	15~30
진남	☀️	15~23
진남	☀️	14~29
진남	☀️	12~25

목포	미물(고)	03:09 / 15:06
	셀물(저)	08:21 / 20:22
여수	미물(고)	09:52 / 22:34
	셀물(저)	03:50 / 15:53

정성호 법무장관·검찰 지휘부, 5·18묘지 참배

“오월정신, 자유·법치 토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맞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24명과 함께 지난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날 정 장관은 검찰 지휘부와 함께 민주영령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가 함께 5·18민주묘지를 공식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참배에는 정 장관과 구 직무대행 외에도 이은철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고경순 광주고검장, 김중우 광주지검장, 박경선 광주교도소장, 이정민 광주보호관찰소장, 이승원 광주소년원장,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이번 참배에 대해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 깊이 성찰하며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참배를 마친 정 장관과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희생자 시신을 안치할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 총격에 숨진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 등을 차례로 찾아 헌화·묵념했다.

정 장관은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이자 법치의 토대인 오월 정신이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월의 주먹밥 희망을 나누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 ‘5·18 민주정신 계승 포럼 및 주먹밥 나눔 행사’에 참석한 RCY 단원과 적십자 봉사원들이 주먹밥을 만들고 있다. ‘기억하는 오월, 함께 나누는 내일·오월의 주먹밥 희망을 나누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RCY 단원과 적십자 봉사원, 일반 청소년 및 시민 등 130여명이 참여했다. 청소년들이 노래 세대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나눔과 연대의 상징인 ‘주먹밥 정신’을 현대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재현된 ‘광주 대동정신’

만년필 ○...1980년 5월 광주 대동정신이 ‘커피 선결제’로 재현돼 눈길.

17일 SNS 등에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가 열리는 동구 금남로와 5·18민주광장 인근 카페에 선결제했다’는 게시글이 확산.

실제로 KBS 열린마당 진행자인 광국근씨는 전일빌딩245에서 커피 518잔 나눔을 진행. 또 장애인 단체인 ‘실로암사람들’은 ‘카페홀더’와 ‘조이앤커피’와 함께 커피 트럭을 운영.

이러한 모습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양동시장, 대인시장 아주머니들이 모여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줬던 대동 정신을 떠올리게 만들어.

송태영 기자 sty1235@



건강검진

매일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60415-중-211304호

